

좋았던 그 전시, 다시 한번

박은용 전 3월 10일까지 연장... 권승찬 무등도요로 옮겨 3월까지... 이민 'Y스토리' 20일까지 양림미술관

관람객들에게 사랑받았던 전시들이 연초 다시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한국화가 박은용 전은 한달간의 연장 전시에 들어갔고 권승찬 작가는 전시 공간을 바꿔 새롭게 관람객을 초청한다. 이민 판화 작가는 양림동 이야기를 담은 도자 회화 작품으로 다시 전시를 열고 있다.

◇박은용 전

생은 외로웠지만 따뜻한 그림으로 남은 고(故)석연(石顯) 박은용(1944-2008)의 작품 세계는 지난해 광주시립미술관의 기획전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전시관을 찾은 이들은 작품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미술관은 당초 10일 막을 내릴 예정이었던 '박은용-검은 고독, 푸른 영혼' 전시를 오는 3월 10일까지로 연장했다.

지난해 박 화백의 10주기를 맞아 기획된 전시에서는 한국화 52점, 유화 2점, 수채화 4점, 스케치 등 다양한 작품과 함께 편지, 인터뷰, 유품 등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를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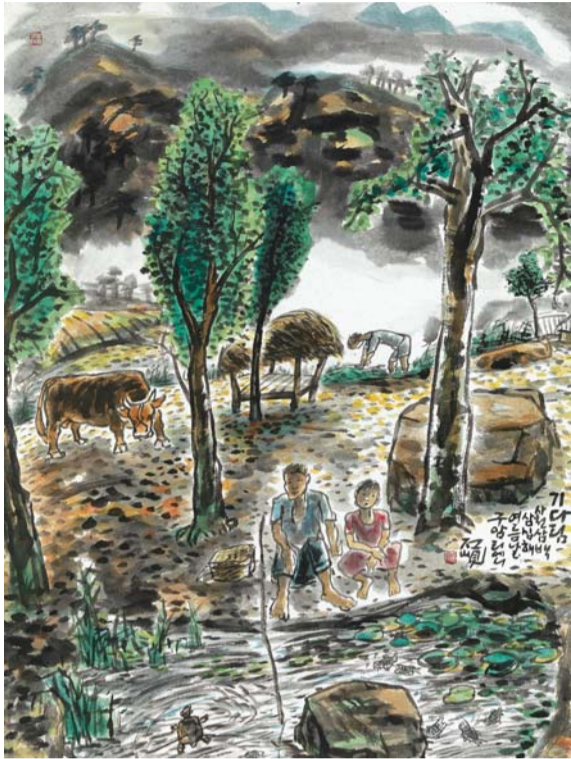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삶을 옥죄었던 정신분열증·우울증에 따른 고독과 불안이 함께했던 그는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하고 풍요로운 일상 풍경과 애정이 담긴 이웃들의 모습을 그리며 작품 세계를 이어왔다.

전시에서는 '생활 풍속화'로 불린 그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는 3m 대작 '남도 가을날'을 비롯해 추수하는 풍경,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등의 모습을 담은 작품과 함께 먹을 수없이 중첩시킨 '적묵법(積墨法)'으로 작업한 '새벽의 씨 뿌리는 여인' 등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나주 정신병원에서 아내에게 보낸 그림 엽서, 마지막까지 사용했던 닳고 닳은 먹과 벼루 등 그의 예술혼을 느낄 수 있는 유품들도 전시돼 있다. 문의 062-613-7144.

◇권승찬 전

2018년 광주미술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



박은용 작 '기다림'

한 활동을 펼친 미디어 아티스트 권승찬 작가는 지난해 광주시립미술관이 매년 한 명씩 선정하는 청년작가초대전에 선발돼 '권승찬의 있다'전을 가졌다. 당시 그는 미술관과 함께 도예가 고(故) 조기정(1939-2007) 작가의 '무등도요'를 전시 공간으로 삼아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초대전을 마무리한 그는 지난 1월부터 전시 장소를 무등도요로 옮겨 '무등도요 공간의 힘-권승찬 있다 이후' 전(3월1일까지)을 열고 있다.

권 작가는 지난해 무등도요 4곳에서 진행했던 전시를 이번에는 7곳으로 확장하고, 작품 배치도 다시 했다. 전시에서는 'LIFE IS LONG BUT THERE IS NOTHING TO DO' 등 텍스트와 트레이드마크인 알록달록 다채로운 색감의 형광



이민 작 '풍경 Y'

등, 복잡한 전시 등을 그대로 노출한 미디어 설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또 17세기 네덜란드 작가의 정물화에서 아이디어를 따와 기존 정물화 느낌의 작품에 청자, 점토 등 조기정의 열정이 담긴 자기들을 배치해 사진 촬영한 '장물' 시리즈를 비롯해 사운드, 영상 등 다양한 작품을 전시했다. 작품 관람을 원할 경우 미리 연락(010-2786-5190)하고 방문하면 된다.

◇이민 작가 전

지난해 12월 양림미술관에서 'Y스토리'전을 열었던 이민 작가는 오는 20일까지 '시즌 2' 형식으로 다시 양림동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지난해 전시장을 찾은 관객들의 호응이 이어진 결과로 미술관측은 이례적으로 그를 다시 초청했다.

전시작들은 멀리 보이는 양림교회, 푸른 하늘의 별빛과 어우러진 한희원 미술관,

미망의상실 앞에 놓인 파라솔, 남은 수레가 자리한 누군가의 집앞 등 다채로운 골목 풍경들이다.

화려한 색감이 돋보이는 전시작들은 회화처럼도, 판화처럼도 보인다. 거칠거칠하고 숨결이 살아있는 판화의 매력을 살림과 동시에 기존 판화보다 색 표현이 자유로워 다채롭고 명징한 색감을 얻어낸 작품들이다. 전시작들은 이 작가가 최근 상표 등록까지 마친 '판타블로'(Pan Tableau·판화와 서양화 기법 결합)로 제작됐다.

이번 양크르전에서는 평면 세라믹에 수채화 작업을 진행한 도자 회화 작품 40여 점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작가는 크기 12cm×12cm 크기의 평면 세라믹에 골목과 건물, 주택 지붕 등 양림동의 모습을 담아냈다. 문의 062-607-231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수도 광주' 실현보다 '보은'? 문화예술계 인선 부적격 논란

첫 개방형 문예회관장에 '정치인' 성현출씨 선임

새해 광주시의 문화예술 공공기관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잇따라 부적격 논란을 빚고 있다.

개관 28년 만에 첫 개방형 직위를 도입한 광주문화예술회관장(4급 서기관급)에는 지난해 남구정장에 출마한 성현출(55·사진)씨가 선임되면서 문화예술계 인선 인프라가 부족한 이음섭 광주시장이 자신의 선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성씨를 '보은 인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7월 문화경제부시장 직제를 신설한 이 시장은 지난달 23일 '민선 7기 광주시 문화정책'을 확정 발표하며 '문화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책임 있는 전문가'의 임용에 대해서는 역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광주시는 최근 3·4급 개방형 직위 인선을 발표하면서 신임 문예회관장에 성현출씨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개관 후 관장직은 모두 23명에 걸쳐 시 공무원이 맡아오면서 전문성 부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성 신임 회관장은 신원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달 중 임용될 예정이며 임기 2년 동안 8개 시립 예술단과 회관 운영 전반을 맡아 326억 원의 예산을 운용하게 된다.

전남대 행정학과 석사와 조선대 체육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한 성씨는 남구문화회관장, 광주문화재단 이사, 조선대-송원대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3년부터 4년 9개월 동안 광주문화원 연합회 회장을 지낸 그는 이 경력력을 제외하고는 출판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을 쌓아왔다.

광주 남구의회 3·4대 의원, 문재인대 통령후보 광주조직특보, 참여자치21 지방자치 전문위원, 새생명찾아주기 범시민운동본부 늘사랑공동체 회장 등으로 활동한 성씨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남구정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과거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당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뒤늦게 밝혀져 중도 사퇴하는 등 도덕적 자질 논란도 빚었다.

문예회관장에 선임된 성씨가 원장직을 맡았던 남구문화원은 문화교실·문화대학, 문화제사업, 굿모닝양림 축제제 기획·운영하는 사단법인으로, 일각에서는 시장·오페라단·발레단 등 8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기에는 '전공·역량·경력' 면에



서 모두 낙제점이 라는 평이 팽배하다.

지역 문화계는 무엇보다도 성씨가 광주시 문화예술단체의 컨트를 타워 역할을 해야 할 '문화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용섭 시장 캠프에 문화계 인사의 참여가 저조했던 탓에 적임자를 찾지 못했고, 이 시장의 선거를 도왔던 정치인이 문화예술회관장을 맡게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인' 성씨의 관장 선임에 따라 자칫 문예회관이 이 시장의 '문화계 정치 기반'을 닦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문화재단 4대 사무처장에는 송은 갤러리 관장과 아트페어 '아트광주' 홍보위원장 등을 지낸 이모숙(56)씨가 선임되면서 전문성 논란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조직관리 경험은 거의 없는 이씨가 문화재단의 사무처장으로 자격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이 2013년 초대회장을 지낸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지원포럼은 지난달 18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이사회가 추천한 '신임회장 선임안건'에 대해 대다수 위원들이 '이력'을 이유로 이달 정기총회로 논의를 미루기도 했다. 일부는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포럼에 광주시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사)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광주민예총) 회장을 지내며 문화예술 기관장의 개방형 직위 전환을 꾸준히 요구해온 윤만식(67) 사단법인 한국민족운동연합회 이사장은 "문화예술부문 외에도 광주시 인사가 전반적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회관장 공모 공고가 날 때부터 내정자가 있다는 소문을 들어 불쾌감을 느꼈다"며 "민선 7기 문화예술계 인선은 '깜프·보은 인사'를 떠나 전문성과 경륜 위주로 심사숙고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탱고 트리오 선율

21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김아람·고상지·이현진 출연



고상지 김아람

탱고바이올리니스트 김아람·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피아니스트 이현진이 오는 21일 광주시 탱고의 진한 선율을 들려준다.

김아람 탱고 트리오의 공연 '중심은 깊고 유연하게'가 이날 오후 7시 30분 광주시 남구 구동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김아람은 아르헨티나에 2010년부터 거주하며 탱고 학교인 Orquesta escuela de tango와 클래식 음악학교인 Instituto Superior del Teatro Colon을 각각 졸업

했다. 2012년에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향의 제1바이올린 단원과 Orquesta Estable del Teatro Colon의 객원으로 클래식 오케스트라 활동을 시작했고 2년 뒤 런던의 Sadler's Wells에서 안무가 Sidi Larbi Cherkaoui가 제작한 탱고 쇼 'Milonga'의 바이올린 솔리스트로 북미와 유럽 전역, 호주, 아시아 등지에서 투어공연을 진행했다.

또한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전통 있는 탱고 공연장인 카롤로 탱고의 전속 바이올리

니스트로 활동하며 탱고음악의 거장인 바이올리니스트 Miguel Angel Bertero를 사사했다.

이번 단독 공연에서는 고상지·이현진과 함께 전통 탱고에서부터 관객에게 익숙한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곡들까지 다양한 탱고 음악을 트리오 구성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김아람 탱고 트ριο는 지난해 11월 광주 예술의 거리에 있는 공연장 살롱드제스에서 공연 '어느 가을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펼치기도 했다. 예매는 구글 폼(goo.gl/forms/6wH6kh8Hib4eZNo43)을 통해 할 수 있다. 전석 3만5000원(예매 3만원).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네이버 NAVER 공식 포스트에서 구독하세요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대안건축사업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장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6년무상A/S/정기점검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